

서문



4년마다 오는 월드컵, 이번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한 달은 온 세계가 밤잠을 설치며 세계 정상급의 축구 선수들이 평생 길러온 축구 기술로 경쟁하는 것을 보고 소리도 지르고, 기뻐하기도 하고, 통탄하기도 할 것입니다. 최고의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축구 기술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유익할까요? 인생도 축구와 비슷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잘하려면 기본기들을 철저히 익혀야 합니다. 훈련과 인내와 절제, 땀, 그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는 노력이 그들을 세계 정상급 선수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한 달 동안 큰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축구를 보면서 동시에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14 월드컵 특집 신앙성장시리즈 “완벽한 게임 계획”은 실제 축구와 영적인 축구를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만 읽을 것이 아니라 축구를 즐기는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오늘의양식사
발행인 김상복 목사

제 1 일

유혹을 이겨내기

악물, 알콜, 섹스와 도박 중독으로 스포츠계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재능 있는 축구선수들이 왜 자신의 선수 생명과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데에 그렇게도 쉽게 걸려드는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강박증적인 성격 때문에 축구선수로 성공한 반면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쉽게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믿습니다. 스타의 지위로 얻는 화려함과 사람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그들의 혈기왕성함도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 많은 돈과 자유로운 시간까지 더해지면 당신은 이제 일이 벌어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신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독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혹과 투쟁을 합니다. 신약성경의 일부를 저술한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롬 7:15). 바울에 의하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롬 7:17)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요소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를 유혹에 노출시키는 우리의 내적 죄성과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끈고한 사람이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롬 7:24). 해결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롬 7:25).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를 얻도록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시적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때 우리는 참된 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다.



목표를 향하여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
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
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
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
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
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
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
어 원하지 아니하는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
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
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로마서 7:15-25)

월드컵 상식

1. 네덜란드 팀 유니폼 상의는 오렌지색인데 국기는 청색, 적색, 백색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2 일

중요한 질문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사람인 클로드 마켈렐레는 한동안 그다지 눈에 띄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키 170센티미터에 몸무게 70킬로그램으로서 경기장 내에서 가장 키가 크거나 가장 몸집이 우람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속팀을 전진 시키는 엔진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상대팀의 공격을 차단하고 재빠른 공격 전진 패스를 하여 상대를 후방에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역할을 너무나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기에 사람들은 “저 선수가 누구지?”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 분분합니다. 그 분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 분이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를 조롱하여 “물 위를 걷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만 그의 가르침이 흥미로운 것을 알았지만 그들조차도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변화된 삶 때문에 다르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했던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끌어당겨주신 것에 대해 고마워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고, 중요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며 또는 부인하며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진리의 자물쇠는 올바른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열린다.

목표를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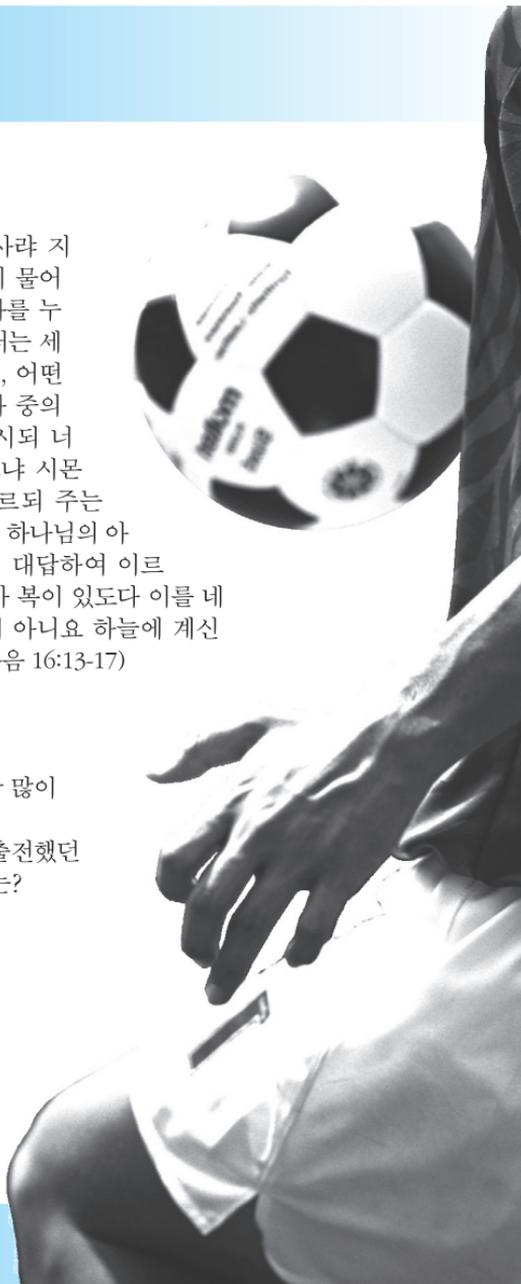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태복음 16:13-17)

월드컵 상식

2. 월드컵 결승전에 가장 많이 출전했던 선수는?
3. 월드컵 지역 예선에 출전했던 가장 나이 어린 선수는?

알고 있었습니까?

1942년부터 1946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FIFA 월드컵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3 일

자책골

골롬비아의 수비수 안드레스 에스코바르는 크로스된 공을 막으려다가 자기의 무릎에 맞은 공이 굴절되어 자기편 골 그물에 바로 꽂히는 것을 경악 속에 바라보았습니다. 그 뼈아픈 실책으로 인해 1994년 월드컵에서 강팀 콜롬비아는 탈락하게 됩니다. 열흘 후, 에스코바르는 그의 고향 마을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슬픈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 자신을 되찾고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또는 거부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결정됩니다.

에스코바르는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어디서 끝나는지 생각해볼 수 있을 만큼 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그(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히 3:15)라고 충고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확실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기 전에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최후의 “자책골”을 넣는 것을 피하십시오.

실수를 할 수는 있으나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목표를 향하여

형제들이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사십 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히브리서 3:12-19)

월드컵 상식

4. 월드컵 한 대회 역대 최다 득점자는?
5. 이탈리아 국기에는 청색이 없는데 왜 청색 옷을 입고 경기를?

알고 있었습니까?

튀니지가 1978년 월드컵에서 멕시코를 3대 1로 격파하여 아프리카 국가로는 본선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제 4 일

너무 성급한 잔치

그것은 이탈리아 팀인 테르메노와 드로의 상위 리그 승격을 위한 경기였습니다. 전후반 4:4 동점이었고 두 팀은 승부차기에 들어갔습니다.

마컬 팔마가 페널티킥을 위해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면 집니다. 그러나 그의 강슛은 크로스바에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드로의 골키퍼 로리스 안젤리는 두 팔을 벌리고 축하하면서 뛰어나왔고 충격을 받은 팔마는 운동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게임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맞은 공은 튀어나와 골대쪽으로 회전이 걸려서 땅에 떨어진 후 천천히 굴러가 골라인을 넘었습니다!

누군가가 언젠가 말했던 것처럼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안젤리는 너무 일찍 잔치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15-21은 너무 성급하게 잔치를 벌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의 은퇴 계획에 공감합니다. 안락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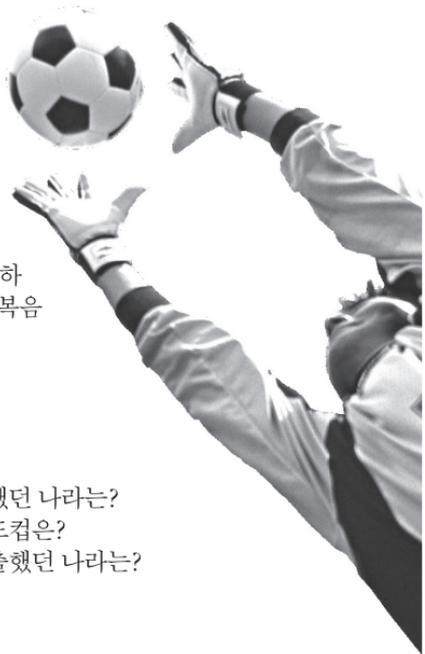
인생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만큼 충분히 일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잔치를 벌이기로 결정하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19절)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어리석음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기”(15절)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결코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20절).

너무 빨리 당신의 인생에서 잔치를 벌이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누가복음 12:15-21)



월드컵 상식

6. 월드컵 본선에 가장 많이 진출했던 나라는?
7. 가장 많은 레드카드가 나온 월드컵은?
8. 월드컵 결승전에 가장 많이 진출했던 나라는?

제 5 일

진정한 플레이메이커

창의적인 선수로서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은 팀의 공격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필살의 패스를 뒀어들이나 전방의 공격수에게 뿌리고 팀의 공격을 개시하며 상대팀의 수비를 뚫으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직관과 경기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그로 하여금 팀원들에게 완벽한 지점으로 공을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탁월한 드리블과 패스 기술을 소유한 플레이메이커는 자기 팀을 위하여 재빨리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플레이메이커”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생활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들조차도 죄에 얽매이고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초의 창조주 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고전 2:9)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한 번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여 상황을 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인생 여정에서 성령이 매일 그들을 인도하여 궁극적으로 창조주와 함께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진정한 플레이메이커는 평범한 선수를 승리자로 느끼게 만든다.

목표를 향하여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린도전서 2:6-10)

월드컵 상식

9.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레드카드를 받은 팀은?
10. 선수 퇴장이 한 번도 없었던 월드컵은?
11. 우승팀을 승부차기로 결정한 최초의 월드컵은?



제 6 일

이적

2009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서 레알 마드리드로 8천만 파운드(한화 약 1,383억원)
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이적했습니다. 요즈음 들어서 축구 클
럽들은 우승컵에 도전하고, 관중을 모으고, 입장료를 더 많
이 걷어 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유명 선수들에게 점점 더 현
금을 ping ping 쏟아 붓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천문학적 숫자에 너무 놀라 숨
을 크게 들이마시지만 고액의 이적료는 축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까지 지불된 최고의 이적료는 당신
이나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잘못 들
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우리를 위해 천문학적으로 높
은 값을 치렀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알리기 위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누누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
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을 위하여 내주시며”(롬 8:32)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
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최고의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하
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필요가 없습
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벌
돈을 이미 모두 내준
것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
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고 또 그가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죽음과 죄악의 세상에서 사랑과 생명
이 넘치는, 하나님과의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확실한 하
나님의 나라로 “이적”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값은 이미 치러졌는데 당신은 아직 “이적” 되지 않았습
니까?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
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
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
을 때에 그
리스도께서
우리를 위
하여 죽으
심으로 하나
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을 확증하셨느니라(로마서 5:6-8)



월드컵 상식

12. 두 나라에서 개최된 월드컵은?
13. 월드컵에서 골이 가장 많이 터진 경기는?
14. 제1회 월드컵이 개최된 때와 장소는?

제 7 일

참된 가치

1966년 런던 월드컵 홍보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을 때 전시품인 줄리메 트로피가 도난당해 축구계에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시회 책임자인 세실 리차드슨은 도둑이 주변에 전시된 3백만 파운드 상당의 우표는 건드리지 않고 3천 파운드짜리 트로피만 훔쳐간 것을 알고는 놀랐습니다. 그 트로피가 지닌 상징성이 도둑으로 하여금 값이 덜 나가는 물건을 훔칠 동기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46절에서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 지 보여주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남자와 어떤 한 상인으로 하여금 전 재산을 내놓게 만들 정도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진주와 숨은 보물처럼, 천국은 제대로 헤아려보면 구도자의 삶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줍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겉보기에 반짝거리는 이 세상의 보물들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 영적으로만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의 참된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나가는 환상과 영원한 실체의 차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그러한 속임수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도둑은 우표보다 줄리메 트로피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이 세상의 부유함과 천국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결론은 자명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기준들은 참된 기준이 나타날 때까지는 상대적이다.

목표를 향하여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마태복음 13:44-46)



월드컵 상식

15. 1930년 제1회 월드컵 트로피는 나중에 기증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는데 그 기증자는?
16. 1990년 월드컵 공인구의 이름은?
17. 월드컵 역사상 1000번째 골을 넣은 선수와 그 경기는?

제 8 일

당신의 가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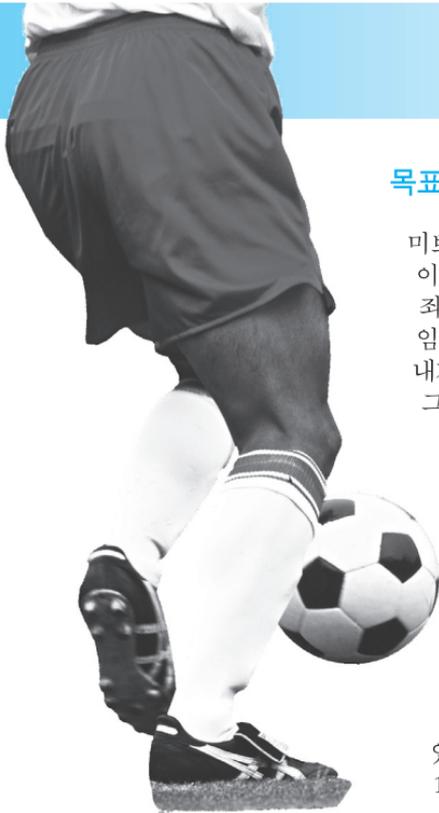
당신은 축구선수의 이적 가치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선수의 값을 매기기관 아주 복잡합니다. 구단주, 구단, 매니저들은 선수의 나이, 기량, 인기도, 포지션, 현재 뛰고 있는 리그들을 고려하여 몸값을 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수의 참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기꺼이 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매깁니까? 우리들의 참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의 가치를 주로 다른 사람들이 즉, 우리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 형제자매들, 친구들, 이웃, 동료, 상급자, 심지어는 하급자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데서 느낍니다. 그들 없이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매길 수 있다고 아무리 가장을 해도 그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매긴 가치도 **우리는 삶에서 단 하나**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줄 수가 있 **나의 가치평가를 필요**
는데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지식을 **으로 한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인류가 궁극

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그분이 매긴 가치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깊은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
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
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디모데전서
1:15-17)

월드컵 상식

18. 2010년 월드컵까지 나온 월드컵 총 골 수는?

제 9 일

진정한 휴식

오스트리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센터 포워드로 뽑혔던 마티아스 진텔라는 1930년대에 전례 없는 성공시대를 누렸던, 전문가들이 “경이로운 팀”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오스트리아 국가대표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진텔라는 현란한 기량으로 왈츠를 추듯 골을 향해 가며 그의 뒤를 쫓는 수비수들을 자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과 꼭 같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굴복하지 않는 충성심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애국자였던 그는 1938년 조국이 독일에 병합되고 “경이로운 팀”이 해체되자 독일을 위해 경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다음 해 1월 어느 겨울 아침 그는 침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때 그의 나이 35세였습니다.

사람들은 진텔라와 같이 개인적으로 큰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자리에 꿋꿋이 서서 불의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감탄합니다. 사실상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웅으로 죽기보다는 겁쟁이로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의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속이지는 맵시다. 타협도 값싸게 손에 들어오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타협에 따른 죄책감, 수치감, 후회, 자기혐오는 삶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력한 감정입니다.

망가진 양심으로 인해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은 수고하고 짐을 진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진정한 용서와 회복은 항상 의로우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됩니다.

**위로 받은 양심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목표를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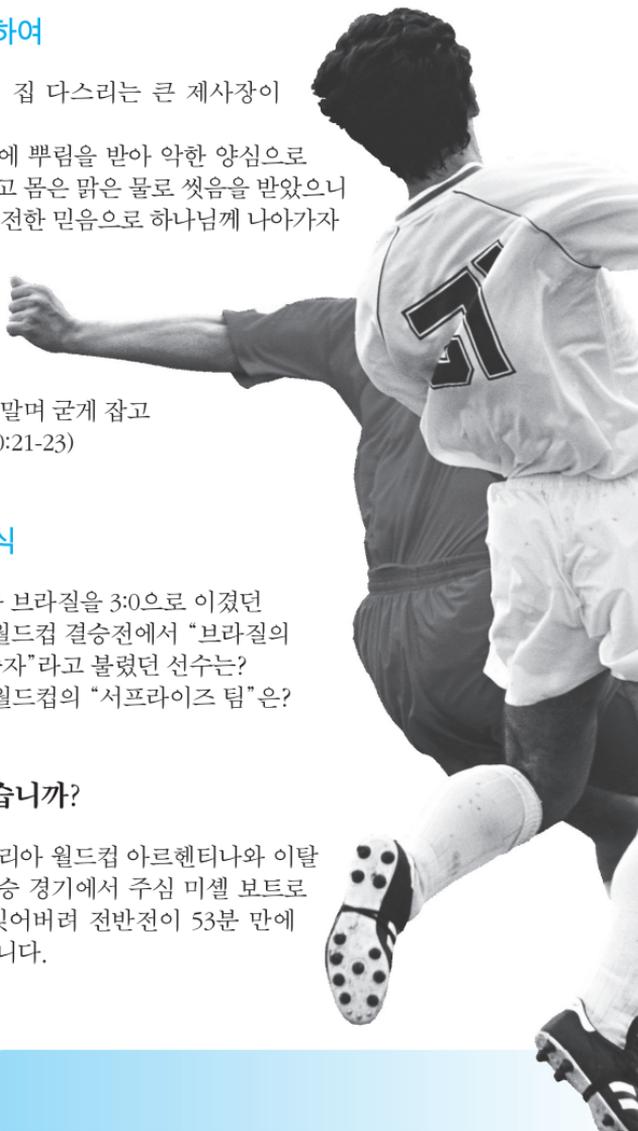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
신 이는 미
쁘시니 우
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21-23)

월드컵 상식

19. 프랑스가 브라질을 3:0으로 이겼던
1998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브라질의
고문기술자”라고 불렸던 선수는?
20. 2002년 월드컵의 “서프라이즈 팀”은?

알고 있었습니까?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의 준결승 경기에서 주심 미셸 보트로
는 시간을 잊어버려 전반전이 53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제 10일

영광스러운 날

축구의 가장 큰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정말 아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수십 대의 텔레비전 카메라가 당신을 향하고 있고, 그 카메라를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두 눈들이 당신의 매 순간을 주시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조금 긴장하더라도 충분히 이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요 언어로 전문가들이 당신의 모든 패스와 슛과 태클을 분석하여 “생방송”으로 보고합니다. 물론 관람석에서 깃발을 흔들며 소리 지르는 십만 명의 축구팬들도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 국가수반, 총리, 심지어는 왕과 여왕 같은 귀빈들이 경기장을 빛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당신은 훌륭한 복장으로 귀빈석에 앉아있는 왕족에서부터 세계 어느구석의 빈민가에 사는 맨발의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지켜보는 세계적인 관심의 중심에서 있는 것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이 경기와 비교할만한 경기가 오늘날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같은 시간에 함께 숨을 죽이고 지켜보니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경기를 훨씬 능가하는, 앞으로 다가올 그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 따로 준비해둔 날입니다. 그날에 전 세계에서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이 모두 모여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 볼 것입니다.

**만약 기뻐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들여다보고만
있는 것이다.**

긴장 된다고요? 그렇고말고요! 그 놀라운 날이 오기 전에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십시오(롬 8:19).

목표를 향하여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18-25)

월드컵 상식

- 2010년 남아프리카 월드컵 마스코트인 '자쿠미'의 뜻은?
22. 유럽 밖에서 개최된 월드컵 횟수는?

알고 있었습니까?

월드컵 텔레비전 중계는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11 일

요행에 말기다

1994년, 월드컵 사상 최초로 승부차기로 우승팀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주장 바레시의 골대를 넘기는 형편없는 실축으로 승부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브라질 선수 산투스의 힘없는 슈팅이 골키퍼에게 잡히자 알베르티니의 슈팅으로 이탈리아 팀이 승기를 잡는가 했더니 호마리우가 브라질을 위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에바니가 찬 볼이 골키퍼를 피해 골 그물에 꽂혔습니다. 그러자 브라코는 골키퍼를 다른 방향으로 유인해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마사로가 나왔으나 그가 찬 공은 절묘하게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다음에 우쥘대며 나선 브라질 팀 주장 동가가 공을 골키퍼 뒤로 보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 팀의 마지막 키커 바조에게 모든 희망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찬 공은 하늘 높이 솟구치고 말았습니다. 브라질은 월드컵 역사상 통산 네번째 황금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박과 비슷하다며 승부차기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팀워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술도 운에 밀립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들이 쌓아왔던 선행만을 믿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요행을 바라며 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노력에 의지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경고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보증하십니다. 누가 페널티킥을 차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왜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요행에 맡기십니까?

확신을 가지면 요행에 맡기지 않게 된다.

목표를 향하여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에베소서 2:1-10)



월드컵 상식

23.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직전에 도난당한 줄리메컵을 찾은 개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까?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는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제 12일

신인발굴자

“나는 내가 천재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인발굴자 밥 비숍이 1961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맷 버스비에게 보낸 전보에 쓴 유명한 말입니다. 그 천재가 축구의 전설 조지 베스트입니다. 그 때 15세의 훌쭉한 북아일랜드 소년이었던 그는 그 말이 언젠가는 그를 축구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하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winger’, ‘북아일랜드 대표 선수’, ‘올해의 유럽 축구 선수’가 되는 길을 닦아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슈퍼스타들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걸출한 경력은 대부분 그들이 단지 말라깽이 소년일 때 찾아내서 명성과 영광으로의 티켓을 주었던 날카로운 안목을 가진 신인발굴자의 덕분입니다.

또 다른 신인발굴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밖으로 나가 자신이 성자로 만들어 천국의 영광으로 가는 길로 보낼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닌 이기적인 품성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완전한 존재가 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고후 3:18). 천사들조차도 이만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발굴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광에 이르게 하는 티켓은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면 당신은 일시적인 명성이 아닌 영원한 영광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영광을 얻을 의지 있는 후보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능가하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도자기 물레 위에 놓인 진흙처럼 인간의 마음은 빚어지기를 기다린다.

목표를 향하여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
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를 예정하사 예수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기의 아들이 되게 하



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
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
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
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
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이 되었으니(에베소서 1:4-11)

월드컵 상식

24. 1934년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지역 예선을 치르지 않은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까?

최초의 월드컵 마스코트는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등장했
던 윌리라는 작은 사자였습니다.

제 13일

거의...

1999년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패한 후 이 팀의 수비수 사무엘 쿠포어가 극심한 좌절에 빠져 계속해서 땅을 치고 있던 슬픈 모습은 많은 축구 팬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90분 경기 마지막 순간에 1대 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뤼기 콜리나 심판이 3분의 추가 시간을 선언한 후, 어떻게 된 일인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모든 예상을 뒤집고 두 골이나 몰아쳤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승리에 너무 가까이 갔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과 후원자들에게는 가슴을 쥐어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심판의 날에 거의 하늘나라로 갈 뻔 했던 사람들이 느낄 고통스런 실망과도 너무나 흡사하며,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권유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하시다면 할 수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깊이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아그립바 왕(행 26:28)의 전철을 따르지 마십시오.**

심판의 날에 “거의...”라는 말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한 때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있었으나 거부하기로 결정했었다면 더욱 안타깝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잠시뿐인 은제 우승컵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망하는 당신의 영혼 때문일 것입니다.

“거의...”는 인생에서 가장 실망스런 단어로 판명될 수 있다.

목표를 향하여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사도행전 26:19-29)

월드컵 상식

25. '베른의 기적'이란 이름이 붙은 경기에서 독일과 싸운 팀은?
26. 2010년 월드컵 골든볼(최우수 선수) 수상자는?



제 14 일

전술 변경

양팀이 서로 미드필드를 장악하기 위해 격렬히 싸우면서 경기기는 치열한 스피드로 진행됩니다. 자비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미드필드 장악은 현대의 경기에서 중대합니다. 이는 대체로 공격이 미드필드에서 조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드필드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축구에서는 4-5명의 수비수들과 5-6명의 공격수들이 땀니다. 과거에는 수비수들이 상대편 진영 끝을 향해 희망을 담아 공을 길게 차고 공격수들이 그 공이 떨어지는 지점으로 쫓아가곤 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진행 양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전술을 고집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면서 언젠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비웃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삶은 변함없이 계속된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벧후 3:4).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부패를 설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후로 경기 계획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인류를 심판하실 근거로 삼으셨습니다(요 3:18).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옛 경기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은 뒤로 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일을 압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목표를 향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립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베드로후서 3:3-10)



월드컵 상식

27. 줄리메 컵을 대체한 현재의 월드컵 트로피를 디자인한 사람은?

제 15일

실망

비록 선수들이 대담한 척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서 읽을 수 있고 목소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각 선수들은 모두 월드컵에서 뛰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힘든 훈련은 제쳐놓고 보더라도 어떤 선수들은 가족이 이사를 해야 했고, 월드컵 대표팀에 선발될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믿는 구단에서 뛰기 위해 연봉 삭감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월드컵 대표로 선발되고 나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담한 타격입니까? 만약 그 월드컵이 그들이 떨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절망은 갑절로 커질 것입니다.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어긋날 때 우리는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영향의 깊이는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적인 차질이라면 일과성 고통이겠지만, 영원한 상실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망가지게하고 우리에게 그림자를 드리울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우리는 절망과 싸우는 사람을 봅니다. 그의 삶의

실망은 만만치 않은 상대이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여건과 삶에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아삼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2절). 그리고 왜 의롭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13절). 그는 답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시 원래의 관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25절)라고 선포했습니다.

실망으로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기대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초점이 되도록 하십시오.

목표를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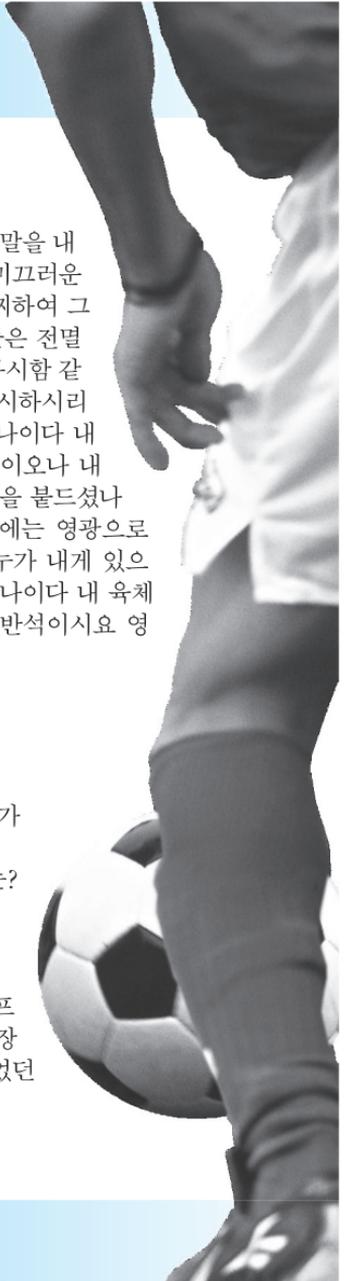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찢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시편 73:17-26)

월드컵 상식

28. 2010년 월드컵 공식 주제가의 제목은?
29. 월드컵 결승전 공인 심판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은?
30. 월드컵에서 가장 빨리 퇴장당한 선수는?

알고 있었습니까?

2010년 FIFA 월드컵 대회가 열렸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온은 역대 월드컵 중 가장 낮았습니다. 브라질과 북한의 경기가 있었던 날은 영하 1도였습니다.



제 16일

믿기 어려운 승리

결승 토너먼트 참가팀 중 우승확률 500분의 1인 미국 선수들에게 승산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수 대부분이 파트타임인 팀이 어떻게 축구의 종주국인 잉글랜드를 격파할 수 있겠습니까? 잉글랜드 팀은 세계 정상급 선수를 자랑하는 반면에 미국팀은 접시닢이, 우체부, 교사, 영구차 기사를 모아놓은 오합지졸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여름,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월드컵에서 미국이 잉글랜드를 1:0으로 누르고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이 승리는 “잔디위의 기적”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승리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승리가 죽음과 맞서기 위한 인류의 전투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죽음은 패배를 모르는 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대결할 때 변화를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대결에서 인류에 깊은 영향을 미친 사실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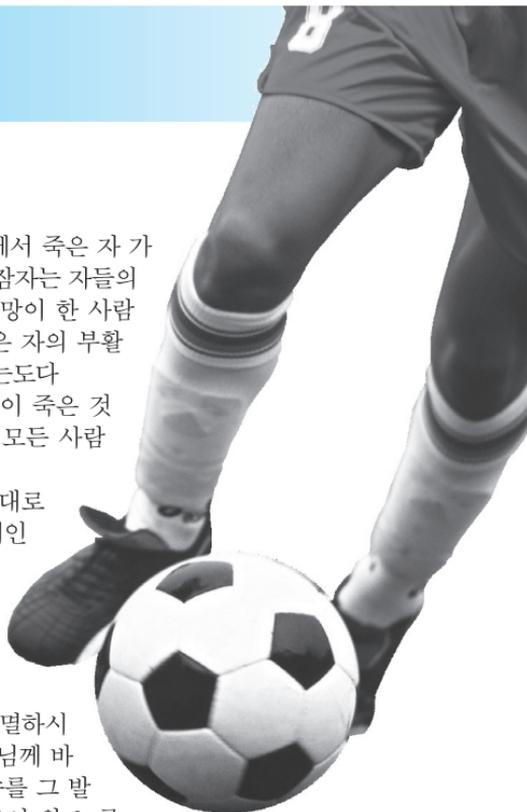
그는 혼자서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지배세력과 이 지배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영적인 힘, 그리고 죽음 자체와 대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무시한 후 찾아온 승리가 가장 달콤하다.** 비록 친구건 적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분명한 패배를 승리로 되돌려서 영원히 죄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복속시켰습니다(고전 15:24-25). 그의 수치스런 죽음은 바로 사랑, 은혜, 용서, 생명,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분은 당신과 나를 위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린도전서 15:20-26)

월드컵 상식

32. 월드컵을 2회 개최했는데 결승전에 한 번도 못 올라간 나라는?
33. 월드컵에 2회만 출전했었는데 2002년에 세 번째로 출전해서 3위를 차지한 나라는?



제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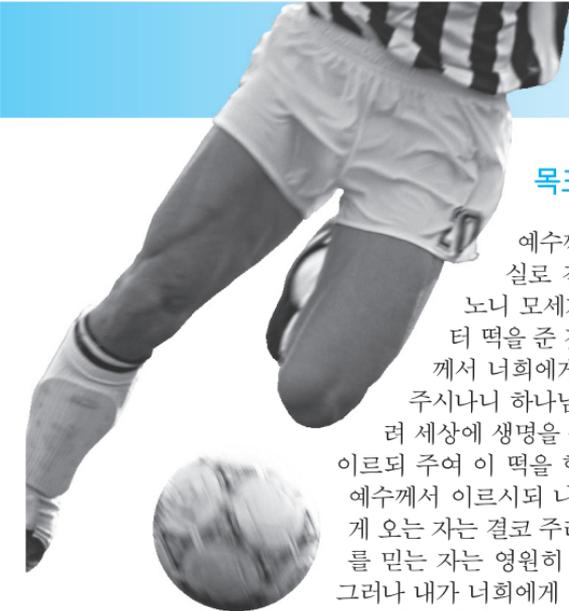
슬라이딩 태클

축구팬들은 슬라이딩 태클은 수비수가 보통 상대 공격수의 측면에서 앞발로 미끄러져 들어가 상대방 공격수의 발에서 공을 떼어내는 것임을 압니다. 태클은 그 방법상 접촉이 불가피하고 공격하는 선수가 수비수 위로 언제나 넘어 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계를 인용하여 슬라이딩 태클이 축구 경기 중 부상의 25%를 차지할 만큼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태클은 적절히 구사할 경우 공격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태초부터 죄는 인류를 지배해왔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용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주고 종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15). 그러나 2000년 전, 하늘에서는, 중차대한 작전을 세워 죄에 대해 슬라이딩 태클을 걸어서 죄가 우리를 저주하여 죽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값은 죄 없는 그분의 죽음으로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기쁨의 도화선은 때
맞춘 도움의 성냥불
로 점화된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죄를 그 길에서 멈추게 한 얼마나 완벽한 “슬라이딩 태클”인지요!



목표를 향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요한복음 6:32-40)

월드컵 상식

33. 2010년 월드컵에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해서 출전한 나라들은?
34. 월드컵 역사상 “골든 골” 규칙이 적용된 첫 번째 경기는?
35. 펠레가 처음 출전한 월드컵은?

제 18일

화약통

지난 수년간 FIFA는 월드컵을 조직, 운영하면서 폭력으로 곤혹을 치를 만큼 치렀습니다. 라이벌 팀의 팬들과 서포터들 간의 싸움뿐 아니라 상대팀의 선수들과 관계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패싸움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과 기물파손, 심지어는 사망자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경기가 감정적으로 고조되면 싸움이 경기장에서 관중석으로 옮겨가고, 경기장 밖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국가적 자존심, 시샘, 편견들이 흥분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이성을 잃은 폭력을 일으킵니다. 축구 경기를 넘어서 전쟁을 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경기가 단지 폭발직전의 적대감, 좌절감 또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분노를 터뜨리기 위한 변명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바울은 고삐 풀린 분노가 얼마나 빨리 상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원수가 이용하려고 찾아다니는 완벽한 도구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여 사탄에게 그런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엡 4:26).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기 전에 우리는 분노를 빨리 통제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다. 그러기는 쉽다. 그러나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목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보통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명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완전한 변화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엡 4:20-24).

분노가 해소되지 않으면 중압감은 갑절이 되고 일은 두 배로 된다.

목표를 향하여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에베소서 4:20-32)

월드컵 상식

36. 1994년 월드컵에서 월드컵 사상 최고령인 42세에 골을 넣은 로저 밀라는 어느 나라 선수?

제 19일

골라인 이탈

경기 종료를 불과 몇 분 앞두고 스택스 팀은 그들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골키퍼를 포함한 선수 전원이 공격에 나섰습니다. 선수들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코너킥을 받기 위한 자리싸움을 했습니다.

리노 팀의 골키퍼는 공을 처리하려 골라인 앞으로 나왔다가, 선수들이 공을 차지하려 뛰어 오를 때 마음을 바꾸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던 선수들 뒤에서 침투한 가장 작은 선수인 파티 씨니에게 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헤딩을 했고 공은 엉거주춤 서있던 골키퍼를 지나갔습니다.

골문에서 나온 후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17-23에 나오는 젊은 부자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그가 지닌 부는 하나님 이 그를 인정할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19-20절). 선행을 약간만 더 하기만 하면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확신의 상징인 부(21절)를 포기하라는 예수님의 도전을 받았습다. 인간의 노력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부자는 예수님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골라인 이탈”을 하기는 했지만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지근한 헌신은 헌신이 아니다.

목표를 향하여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 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 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마가복음 10:17-23)

월드컵 상식

- 우루과이 팀의 별칭은?
- 1994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페널티 킥을 실축하여 브라질에게 네 번째 우승을 안겨준 이탈리아 선수는?



제 20 일

이름 없는 영웅들

자신의 진영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아 그는 경기장을 달려 상대 진영 패널티 박스 안에서 팀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았습니다. 교묘히 드리블해서 수비수를 벗어나 패널티 박스 바로 외곽으로 슬며시 침투한 타르텔리에게 보냈습니다. 타르텔리는 어설픈 공을 받았으나 샷을 했고 공은 네트의 끝 쪽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1982년 독일에서 이탈리아가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는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선수가 공격과 수비에 능한 리베로(스위퍼) 가에타노 시레아 선수였습니다. “가이”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활약했던 시기의 모든 중요한 축구 경기에서 우승 트로피를 조국과 소속구단에 안겨주었으면서도 그는 마스크를 피했습니다. 은퇴한 후에야 그의 천재성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다른 모든 이름 없는 영웅들처럼 그는 옳은 일을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성경은 옳은 일을 한 4명의 잘 알려지지 않은 나병환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금자리였던 성벽 안 도시에서 쫓겨난 그들은 퇴각하여 버려진 적군의 진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을 비밀에 부치고 버려진 군량으로 배를 불리 기보다 그들은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왕하 7:9)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갔던 사마리아 주민들을 살렸습니다.

누구든지 이름 없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규범대로 살고 하나님을 시인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영웅들은 대부분 이 땅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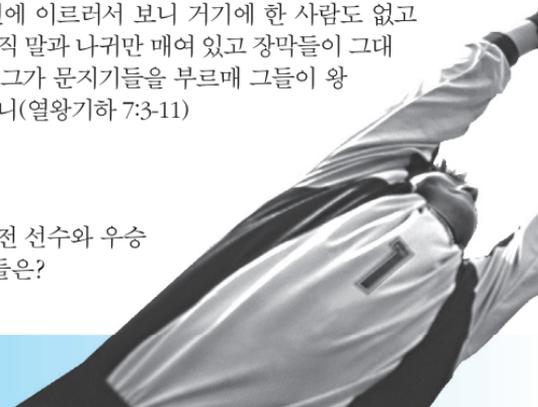
목표를 향하여

성문 어귀에 나병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헛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별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도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열왕기하 7:3-11)

월드컵 상식

39. 월드컵 역사 상 출전 선수와 우승 횟수가 많은 대륙들은?



제 21 일

개천에서 용 나다

브라질의 전설적인 축구선수 가린샤는 절대로 선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양쪽 다리는 길이가 매우 달랐습니다. 왼 다리는 밖으로 휘었고 오른 다리는 안으로 휘었습니다. 그를 진찰한 소아과 의사는 그가 장애인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휨 다리의 천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했고 축구 역사상 최고의 드리블을 구사한 최상급의 선수로서 브라질의 월드컵 우승에 두 번 도움을 주었습니다. 1962년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최상의 기량은 칠레의 신문 머큐리오로 하여금 “가린샤는 어느 행성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말로 믿기 힘든 축구 스타의 이야기는 개천에서 용이 난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고, 주인 아내의 협박을 받았고, 그녀의 근거 없는 모함으로 옥살이까지 했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그의 전 가족을 기근에서 구해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가장 위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므로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개선에 안주하지 말고 완전한 변신을 추구하라.

이렇게 빛나던 가린샤도 짧은 활동 기간을 끝내고 세계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유산은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다. 그는 타고난 능력이나, 행운이나, 불굴의 투지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창 39:2). 삶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목표를 향하여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을
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
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
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
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
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
님의 종들이니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
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
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
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
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
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
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백십 세를 살며
(창세기 50:15-22)

월드컵 상식

40. 1950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약체이면서 1:0으로
잉글랜드를 속살하게 만든 팀은?



제 22일

결승전

1950년 월드컵 때 우루과이와 개최국인 강팀 브라질의 최종전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리우데자네이루의 경기장을 꽉 메웠습니다. 이 결선 4강 경기는 기존의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라 리그방식을 처음으로 택했습니다. 세계 챔피언의 왕관을 얻기 위해서는 비기기만 했으면 됐던 브라질은 최종전까지 오면서 상대팀들을 인상적으로 쓸어냈습니다. 반면에 상대팀은 아슬아슬하게 1승1무를 얻었기에 반드시 개최국을 꺾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우루과이가 역전승하여 토너먼트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순조롭게 출발했던 브라질은 마지막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가 불가피하게 대면해야 하는 생의 “마지막”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조만간에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지 천국일지 지옥일지-생각해보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앞에 우리가 설 때 과거에 우리가 성취한 일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브라질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데 실질적인 소용이 없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브라질은 그날 노력해서 승리를 얻어야 했고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고 완벽한 기준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7)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습니다.

인생의 결승전에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장애물이 가장 중요하다. 지나간 과거의 성공을 생각하지 말라.

목표를 향하여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누가복음 12:4-9)

월드컵 상식

41. 1970년 월드컵에서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선수는?
42. 1966년 월드컵에서 “검은 거미”로 알려진 골키퍼는?
43. “신의 손”으로 알려진 마라도나의 골에 패배를 당한 팀은?
44. 쿠바, 자메이카, 중국, 핀란드 중 2010년 월드컵까지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한 나라는?



제 23일

역대 최고의 팀

세계 최고의 축구팀하면 대부분의 축구팬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드림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성기의 펠레와 마라도나, 베켄바우어와 시레아, 크루이프와 찰튼 이렇게 서로 비슷한 선수끼리 짝을 짓는다고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팀은 어떠한 상대에게도 심각한 도전 이상의 것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선수들만으로는 이 이야기의 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출중한 코치도 필요합니다. 아, 이런 팀은 우리가 하나님이라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세기에 손수 열두 사람을 뽑아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그런 “드림팀”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로서 대부분이 어부였고 사람들에게 경멸받는 세리 한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류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하여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들 열두 사람들은 비단결 같은 말솜씨도 없었고 문화적으로 세련된 사람들도 아니었으나 부족한 능력을 믿음으로 채웠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주변 상황을 바꾸어놓은 그들의 “코치”인 예수님만 의지하여 두려움과 부족한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당신은 벽찬 삶에 도전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굴복하십시오. 그 분은 평범한 사람을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술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의 인도자가
필요하다.

목표를 향하여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6-20)

월드컵 상식

45. 월드컵을 들어 올렸던 가장 나이 든 이탈리아 팀 주장은?
그리고 그것은 언제?
46. 월드컵 역사상 첫 골을 기록한 사람은 어느 나라의 누구?
47. 제1회 월드컵에 출전했던 나라의 수는?



제 24일

영적 진형

“우 리 팀은 4-5-1 보다 4-4-2 로 경기를 해야 해. 한명의 미드필더가 받쳐주는 공격수 2명이 필요해” 라고 앞 줄에 앉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4-1-2-1-2, 다이아몬드 말이야?” 그의 옆에 앉은 친구가 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경기를 넓게 펼칠 수 없게 만들걸.”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좌우 수비수가 있잖아, 안 그래?” 그 남자가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공적인 팀의 근본 요소인 진형과 전략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감독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전 가능한 선수들을 고려하여 25개 유형 중 어느 것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마귀의 간계”(엡 6:11)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죄에 대해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덮을 놓습니다. 사도바울은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12절)라고 경고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사탄이라는 어마어마한 강적을 대적하거나 패배시킬 수 있다. **준비를 제대로 하면 싸움의 절반은 승리한 것이다.** 고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호하고 원수들을 패배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십니다.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13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분께 와서 당신 것을 한 세트 얻으십시오!

목표를 향하여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
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
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
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
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
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에베소서 6:10-17)



월드컵 상식

48. 월드컵 역사상 최장 시간 무실점을 기록한 골키퍼는?
49. 펠레가 브라질 대표팀 선수로 경기를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몇 년 동안?
50. 월드컵에 출전했던 득점 상위 5인은?
51. 1978, 1982, 1986년 월드컵의 마스코트는?

제 25 일

일관성

센틱의 감독이었던 죠크 스타인은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대항하는 법이 있어야만 한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른 사람들보다 20분 먼저 안다.”

이 말은 잉글랜드 팀의 주장이며 전설적인 수비수였고 1966년에 잉글랜드인 최초로 월드컵을 들어 올린 보비 무어를 두고 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맹렬한 스피드를 타고나지는 못했지만 경기를 읽는 능력은 그의 부족한 속도감을 보상하고도 남았습니다. 경기를 냉정하게 계산하는 그는 공을 놓치는 적이 거의 없었고 꼭 있어야할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무어가 축구 경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일의 전개를 미리 알고 정확하게 때 맞춰 계획대로 대응하며 인생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내일 일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예측했던 일이 일부분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고난이 따를 때 근심에 휩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확신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확신은 두려움이 잠가 놓은 것을 풀어준다.**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이 얼마나 굉장한 약속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이 항상 선하신 그분을 우리는 확실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시편 139:13-18)

월드컵 상식

- 52. 스코틀랜드 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 횟수는?
- 53. 월드컵에서 우승한 남아메리카 국가의 수는?

알고 있었습니까?

월드컵은 1938년에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 전파를 탔습니다. 그러나 잦은 송신기 고장으로 인해서 전 경기가 중계되지는 못했습니다.

제 26 일

정상급 후보 선수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조별 경기에서 루마니아가 카메룬과 싸웠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스코어는 0:0이었습니다. 경기가 재개되자마자 카메룬 감독이 갑자기 엄지손가락을 들고 38세의 로저 밀라를 투입했습니다. 밀라는 2골을 넣어 루마니아 팀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밀라는 연장전 때 벤치에서 일어나 두 골을 넣었습니다. 카메룬이 2:1로 이겼습니다.

준준결승전에서 1:0으로 카메룬이 잉글랜드에 뒤진 채 전반전을 끝낸 뒤 후반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의 골 도움으로 후반 18분이 지났을 무렵 카메룬은 2:1로 앞섰습니다. 그러나 카메룬은 그 스코어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잉글랜드에 2:3으로 졌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대단한 “정상급 후보 선수”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최고의 시절은 지나갔고 더 이상 기여할 일이 없다고 느낍니다. 모세와 아론도 각각 80세와 83세 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출 7:7).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시대의 최강국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데 그 두 사람을 사용하였습니다.

인생의 끝 무렵에 놀랄 일이 우리를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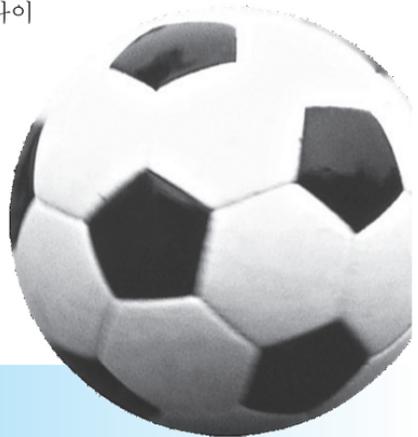
이제 우리가 결코 모세나 아론같이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이 세우신 원대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임재를 생각하며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정상급 후보 선수”가 되기 바랍니다.

목표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 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였고 아론은 팔십삼 세였더라(출애굽기 7:1-7)

월드컵 상식

54. 월드컵에서 가장 빨리 경고 카드를 받은 선수는?
55. 월드컵에서 “바파나 바파나”, “검은 별”이라고 불린 팀은 각각 어느 나라 팀?
56. 월드컵 본선에 출전했던 가장 나이 어린 선수는?
57. 브라질 팀이 유니폼을 흰색과 파란색에서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바꾼 이유는?



제 27일

충분한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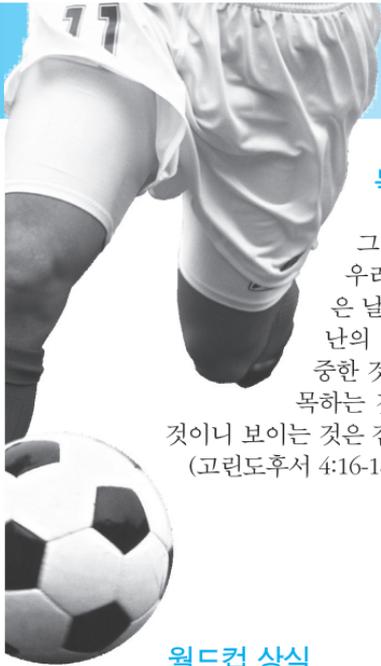
호마레 사와는 2011년 독일에서 열린 FIFA 월드컵 여자축구 대회에 출전한 일본 팀 주장입니다. 그녀는 일본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대회의 골든 부트 상을 받았습니다.

추월해서 올라온 일본 팀은 후반전에 스코어를 동점으로 만들고 페널티 킥으로 경기를 유도하여 마침내 강력한 미국 사단을 꺾고 승자로 올라섰습니다. 나중에 승리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녀는 팀워크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 동안 하나님에 대해 포기해 버립니다.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비난합니다. 위기를 맞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들이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와 믿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기회가 있으신 데도 불구하고 왜 기껏해야 의지할 수 없는 분인 것으로 최악의 경우 옆에 계시지도 않았던 것처럼 보이게 하실까요?

일본 팀은 상대 팀이 지친 것을 그들 앞에 놓인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실천할 기회를 주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장애를 주었다면 그는 어떤 상황을 설정하거나 우리의 삶에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그것을 유익으로 바꾸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16-18에 서 배웠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토양에서 생명이 움튼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보낸 기회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표를 향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결사량은 남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
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
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16-18)

월드컵 상식

58. 1950년 월드컵에 아르헨티나가 불참한 이유는?
59. 2010년 월드컵 공인구의 이름은?
60. 월드컵에 3회 출전한 스페인 선수의 이름은?
61. 2006년 월드컵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한 팀은?

알고 있었습니까?

브라질 축구 국가 대표 팀 유니폼 공모에서 선정된 디자인은 우
루과이의 팬이 출품한 것이었습니다.

제 28일

불평을 멈추라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준준결승전에서 포르투갈은 북한에 3:0으로 질질 끌려가면서 자신들이 속수무책인 것을 알았습니다. 몇몇 선수들은 경기를 포기하는 듯 했지만 예선전 최고의 선수로 활약했던 에우제비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유명한 “검은 표범”이 거의 혼자 힘으로 골 그물을 네 번이나 불룩 튀어나오게 하며 경기를 역전시켜 포르투갈이 5:3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막상 일이 닥치면 보통은 불평하고 비난하며 우리 자신에 대해 한탄합니다. 그러나 불평은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갈 뿐이며 인생을 바닥에서 보도록 만듭니다.

에우제비오는 다른 어떤 것에도 주의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3:0이라는 스코어는 그를 바닥에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를 향해 주먹을 날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모든 역경에는 품성을 온전하게 만드는 기회가 들어있다고 선포하며(약 1:2-4),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역경에 대처할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문제와 더불어 그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기회도 함께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삶에서 참된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가 부여받아야 할 동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다음에 일이 닥치면 그것은 반전의 기회이지 불평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장애물이 없는 길을
가면 얻을 것이 없다.
참된 보상은 험난한
길의 끝에 있다.

목표를 향하여

내 형제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야고보서 1:2-4)

월드컵 상식

62. 처음에는 선수로, 나중에는 코치로서 독일에 월드컵을 안겨준 사람은?
63. 아프리카 국가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출전 자격을 얻은 팀은?
64. 2010 월드컵에서 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빨 나팔의 이름은?
65. 다가올 두 번의 월드컵 개최국들은?
66. 2006년 월드컵에서 출전 사상 최초로 승리를 맛본 팀은?
67. 제 1회 월드컵의 승자는?



제 29 일

타르델리의 괴성

1982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마르코 타르델리가 독일을 상대로 결승골을 넣었을 때 그의 골 세리모니는 완전한 무아지경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먹을 꼭 쥐 채, 입을 벌리고, 머리를 흔들며, 긴 괴성과 더불어 경기장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수년에 걸친 고된 훈련과 격렬했던 지역예선전,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꿈이 마침내 그가 페널티 박스 바로 밖에서 결승골을 날렸던 그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마르코는 이 모든 것을 분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히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계 21:4) 삶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조국과 동료를 위해 월드컵에서 승리하는 기쁨도 경이로운 것이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로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비할 데 없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인해 얼어붙은 듯 서있

는 충성된 종들의 머리 위에 왕이 **천국에서는 백만 명의 기쁨이 터져 나온다.**
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빛이 바래
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손수 씌
워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솟아나겠습니까? 그들의 가장 깊은 열망들을 충족시켜줄 주님과 함께 영원으로 향할 때 얼마나 엄청난 흥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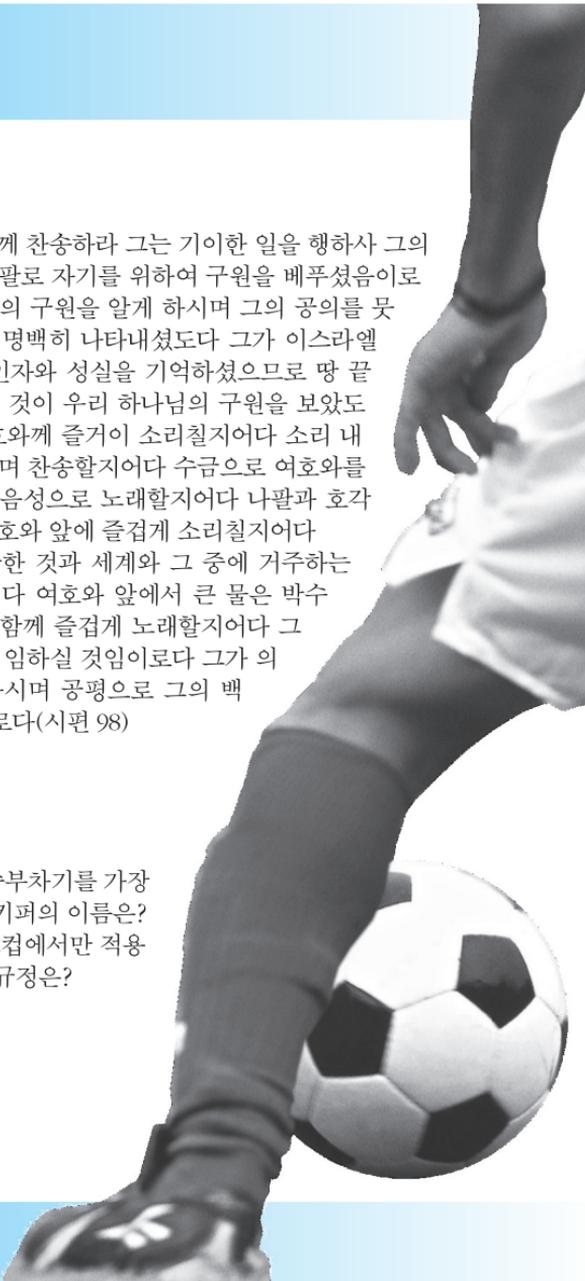
그 날은 그 어떤 다른 날과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죄와, 불완전함과, 슬픔과 싸웠던 세월들은 완전한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으로 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뜻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 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시편 98)

월드컵 상식

68. 월드컵에서 승부차기를 가장 많이 막은 골키퍼의 이름은?
69. 단 2회의 월드컵에서만 적용되었던 FIFA 규정은?



제 30 일

결코 늙지 않는다

프로축구에서 선수 수명은 평균 8년입니다. 오늘날에는 첨단 스포츠 과학과 약품으로 인하여 선수 수명이 10년 혹은 그 이상으로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입니다. 난폭한 태클을 당하거나 잘못 넘어지면 유망한 장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오고 가지만 그 누구도 계속해서 선수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시며 권능과 창조력이 시간이 흘러도 감소되지 않으며 변함없으시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최고의 기량을 지닌 운동선수들도 결국에는 기량이 무디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걸까요? 전성기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영원한 경이로움은 정말로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히 13:8)하십니다. 골로새서 1:15-20에 의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그 분의 권능으로 세상이 유지되며 결합됩니다. 그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권위를 향유하시며 사랑과 의로움으로 완전하십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요일 2:25).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이지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다.

우리의 늙어가는 육체는 우리에게 영원히 동일하게 남아 계시는 어떤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줍니다. 이 어떤 분이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이 끝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영원히 늙지 않는 그분의 세상으로 향할 것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낡으리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시편 102:25-27)

월드컵 상식

70. 가장 많은 경기장을 사용한 월드컵 대회는?
71. 결승전에 3번이나 진출했지만 매번 패한 팀은?
72. 월드컵 역사상 한 경기에서 가장 득점을 많이 한 선수는?
73. “서든 데스” 혹은 “골든 골” 규정이 처음 적용된 월드컵 대회는?

알고 있었습니까?

월드컵에 첫 출전한 선수로서 가장 나이든 선수는 잉글랜드의 데이비드 제임스입니다. 2010년 월드컵에서 알제리와의 경기에 출전했을 때 그의 나이는 39세였습니다.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우리는 월드컵 경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참된 영광, 명예, 그리고 영원함에 대한 갈망들을 취하여 당신의 심금을 울리는 것을 얼핏 보았을 것입니다. 이 소책자에 담긴 이야기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경기를 관람하면 아마도 자신에게서 두려움과 염원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당신의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완벽한 게임 계획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기를 권합니다.

국가나 개인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을 먼저 극복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수치와 죄를 너무나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 잠겨있는 것을 슬퍼하기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섬뜩한 무지함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돌파해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몹시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을 자신에게 부르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로 당신을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께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깊이 뉘우칩니다.

저를 사랑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여 저의 죄 값을 치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나 이제 당신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의지합니다. 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당신이 저의 삶을 주관하소서.

이 기도가 만일 당신의 마음 속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결정을 그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월드컵 상식정답

1. 오렌지공 윌리엄 1세에 대한 경의 표시
2. 브라질의 카푸 (1994, 1998, 2002년 총 3회 출전)
3. 토고의 슬레이만 마망 (생후 13년 310일에 출전)
4. 프랑스의 쥐스트 폰텐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13골)
5. 이탈리아를 통일한 왕조의 전통 색깔인 푸른색을 따름
6. 브라질 (19회로 100% 출전)
7. 2006 독일 월드컵 (레드카드 28회)
8. 브라질과 독일 (각각 7회 결승 진출)
9. 브라질 (역대 월드컵 11회 퇴장)
10. 1950년 브라질 월드컵과 1970년 멕시코 월드컵 (선수퇴장 전무)
11. 1994년 미국 월드컵 (승부차기로 우승팀 결정)
12. 2002년 월드컵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
13. 10골 (1982년 스페인 월드컵 헝가리 대 엘살바도르 경기에서)
14. 우루과이 (제1회 월드컵: 1930년 7월 13일 개최)
15. 줄리메 (제1회 월드컵 트로피 기증자)
16. 에투루스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공인구)
17. 네델란드의 롱 렌선브링크 (1978년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월드컵 1,000번째 골을 기록)
18. 2208골 (2010년 월드컵까지 총 골 수)
19. 지네딘 지단 (1998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브라질을 너무 괴롭혀서)
20. 대한민국 (준결승전 진출)
21. ZA (남아프리카의 약자); Kumi-숫자 10 (월드컵이 열린 해).
22. 9회 (우루과이, 브라질, 칠레, 멕시코(2회), 아르헨티나, 미국, 한일, 남아공)
23. 피클스
24. 페루가 참가를 포기
25. 헝가리 (1954 월드컵에서 서독에 2:3 역전패)
26. 우루과이 디에고 포틀란 (2010 남아공 월드컵 최우수 선수)
27. 실비오 가짜니가 (이탈리아 조각가)
28. 와카 와카 ("해내자!"라는 뜻)
29. 영국의 조지 리더 (1950년 월드컵 결승전 심판 당시 53세)
30. 우루과이의 호세 바티스타 (1986년 스코틀랜드와의 경기에서 경기 시작 56초만에 퇴장)
31. 멕시코
32. 터키
33.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알제리, 가나,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34. 1998년 프랑스 월드컵 파라과이와 프랑스의 경기 (프랑스 승리)
35. 1958년 스웨덴 월드컵
36. 카메룬
37. 라 셀레스테 (푸른 하늘)

38. 로베르토 바조
39. 유럽과 남아메리카 (총 19회 중 유럽 10회, 남아메리카 9회 우승)
40. 미국
41. 게르트 뮐러 (서독 10골)
42. 레프 야신 (러시아)
43. 잉글랜드
44. 핀란드
45. 디노 조프 (40세, 1982년 스페인 월드컵)
46. 프랑스의 위시앵 로랑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47. 13개국
48. 이탈리아의 발테르 쟁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517분 무실점)
49. 1957년부터 1971년까지 14년
50. 호날두(브라질) 15골; 게르트 뮐러(독일) 14골; 미로슬라프 클로제(독일) 14골; 퀴스트 똥텐(프랑스) 13골; 펠레(브라질) 12골
51. 1978년 소년 "가우치토", 1982년 오렌지 "나란히토", 1986년 고추 "피케"
52. 8회 (1954, 1958, 1974, 1982, 1986, 1990, 1998)
53. 3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54. 러시아의 세르게이 골루코비치 (1994년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55초), 이탈리아의 기암뻬에로 마리니 (1982년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55초)
55. 남아프리카 (바파나 바파나-소년들), 가나 (검은 별)
56. 북아일랜드의 노만 화이트사이드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 17세로 출전)
57. 1950년 개최국인 브라질이 결승전에서 우루과이에게 패한 후 그때 입었던 흰색과 푸른색 유니폼을 영구 폐기
58. 아르헨티나가 2차세계대전 후 첫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려했으나 배제되고 브라질이 주최국으로 선정되자 항의 표시로 불참
59. 자불라니 (줄루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60. 미겔 앙헬 나달 (1994년, 1998년, 2002년)
61. 트리니다드 앤드 토바고
62. 프란츠 베켄바워 (1974년 출전, 1990년 감독)
63. 이집트 (1934년)
64. 부부젤라
65. 러시아 (2018년), 카타르 (2022년)
66.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에 3:1로 승리)
67. 우루과이
68. 포르투갈의 리카르도 페레이라 (2006년 잉글랜드와 경기에서 승부차기 3개를 막음)
69. 골든볼 규정 (1998년, 2002년)
70. 2002년 한일 월드컵은 20개의 경기장을 준비
71. 네덜란드 (1974년, 1978년, 2010년)
72. 러시아의 올레크 살렌코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카메룬을 상대로 5골)
73. 1998년 프랑스 월드컵